

## 코앞 日 원전 오염수 방류... “남일 아니랑께요”

### 영광 천일염·굴비 생산 현장

바닷물 증발 천일염 직격탄 우려  
소금 사용 간장·된장에도 악영향  
“국산 어류 방사성 물질 오염 우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과 천일염 생산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굴비의 고장’ 영광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 원전 오염수 방류... 어민들 ‘공포’

“이거 남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되당께.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여. 결국 다 먹게 돼 있어. 어떻게 해서라도 바다에 못 붓게 해야 해.”

십수 년째 영광군 염산읍에서 천일염을 채취해 온 오시술씨의 마음은 타들어 가 기만 한다. 이르면 내달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져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오씨는 “천일염은 바닷물을 태양·바람 등으로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다. 굴비 외에도 김치·간장·된장 등 안 쓰이는 곳이 없다”며 “제조 특성상 오염수로 인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될 수도 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나 만약 유해 물질이 발견된다면 그 즉시 천일염 업계는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염수로 인한 불안한 국민 정서도 체감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현재 소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 어르신은 ‘얼마 살지도 못

하는데 돈 주고 방사능 소금까지 먹고 싶지는 않다’며 십수 년 치 물량을 주문하기도 했다”며 “바다는 흐른다. 아무리 일본에서 괜찮다 해도 결국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정부와 국민이 나서서 이를 막아야 한다. 이제는 먹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영광읍에서 만난 굴비 생산업체 박용호 대표도 “어민들 모두가 당장 직격탄을 맞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부는 오염수와 관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방류가 시작되면 국내산 어류들도 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될 수 있다. 물고기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는데, 어떻게 영향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며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방류해야 한다면 ‘막는 시늬’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피해보상이라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 ● “방사성 물질로 내부 피폭 위험 ↑”

오염수에 노출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방사성 물질의 축적에 따른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오염수 방류 이후 삼중수소 등 인체 유해 성분이 발견된다 해도 이미 늦었다.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방류를 막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한 원자력 전문가는 “삼중수소는 인체 유해 성분으로, 체내 정상적인 세포를 밀어내고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나 사멸시킬 수 있다. 반감기도 굉장히 길다”며 “당장 오염수 노출로 인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없을 수 있으나, 방출이 끝나는 30년 이후에는 방사성 물질이 쌓여 내부 피폭 등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 이와 별개로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 물질도 있을 수 있다. (오염수 방류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글·사진=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지난달 30일 영광군 염산읍에서 만난 오시술씨가 바닷물이 천일염으로 가공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오씨는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 천일염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 “혁신 말뿐이었나”... 광주·전남 대학 ‘각자도생’

### ‘글로벌대학30’ 지역 14곳 신청 전국 27곳 통·폐합안 제시 ‘대조’

비수도권 대학에 대학별로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 공모에 광주·전남 지역대학 14곳이 신청했다.

전국적으로 108곳이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27곳이 통·폐합을 전제로 지원한 반면 지역 대학은 모두 개별신청을 택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상황 속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혁신과 자구 노력을 강조했던 대학들의 주장이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사립 일반대는 지원 가능한 대학 중 2곳을 빼고 모두 지원했고, 국립대 참여율도 80%에 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마감한 ‘글로벌대

학30’ 예비지정 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 가능 대학 166곳 중 108곳(65.1%)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공모를 신청한 지역대학은 14곳이다. 광주는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호남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송원대 등 8곳이다. 전남은 △동신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초당대 △순천제일대 등 6곳이다.

글로벌대학 30 공모 혁신방안 중 1순위로 꼽히는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신청은 27개 대학으로 총 13건의 혁신기획서(신청서)를 제출했다. 순천대와 전남도립대 등의 학교 통·폐합이 거론됐지만 지역 대학은 모두 개별신청에 나섰다. 다만 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남도립대와 ‘학과간 연합’안을 제시했다.

지역별 대학 수는 부산 16곳, 충남 15곳, 경북 14곳, 대전·전북 각각 9곳, 광주

·충북 각각 8곳, 경남 7곳, 대구·강원·전남 각각 6곳, 세종 2곳, 울산·제주 각각 1곳이다.

글로벌대학30은 200여개 지방대학 가운데 ‘혁신 방안’을 제시한 대학 30곳을 선정해 정부가 대학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10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매년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학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뒀다 한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예비지정 심사에 착수했다. 결과는 이달 중 발표하며, 최대 15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비지정을 통과한 대학은 9월까지 실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차 본지정 평가를 받는다. 최종 결과는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광주사람들 (527/1000)**  
**심재화**  
타이거즈 헤리티지 가죽  
▶ 관련기사 16면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기념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화순군·담양군에 걸쳐있는 국립공원 제21호 무등산은 지난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재인증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일보사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념해 오는 6월 17일 ‘제17회 무등산등반대회’를 개최합니다. 증심사지구~중머리재~서석대 구간 6km에서 펼쳐지는 이번 산행은 8700만년 대자연의 신비를 오롯이 감상하고 수려한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뜻 깊은 등반이 될 것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하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에서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실 사·도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2023년 6월 17일 (토) 오전 8시30분
- **장소** - 문빈정사앞 광장 (집결)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5일 (월) ~ 6월 9일 (금)
- **인원** - 300명 선착순 접수
- **1365 자원봉사포털 이용 자원봉사 가능**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 **참여방법** - 홈페이지(www.jnilbo.com) 접속,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문의** - 062) 519-0730-1
- **주최주관** - 전남일보·전일엔컬스
- **후원** -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 화순군·담양군·전남대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